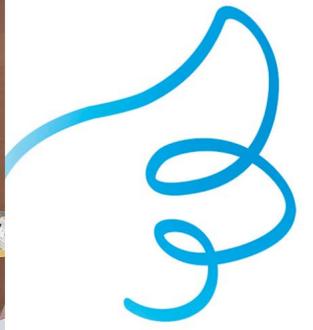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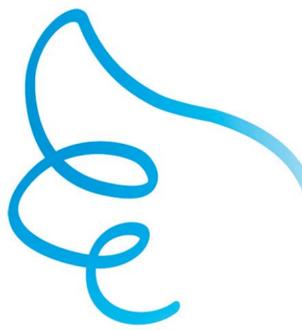


‘청소년에게 행복의 날개를’... 청소년 전문기관 선도모델 우뚝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분야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가족친화 및 교육기부 인증기관 선정, 2019년 여성가족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전 시설 최우수등급, 성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S등급...

2008년 9월 설립된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다양한 성과를 통해 청소년 전문기관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시 전역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수학관을 조성해 성남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단은 2009년부터 성남시 청소년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라는 재단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지수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청소년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행복’,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으로 구분해 국내 및 OECD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성남시 청소년 행복지수는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주관적 행복’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대다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더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성남형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민주시민교육, 코딩교육, 생존수영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성남시 전체 특성화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운영하여 특성화고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중도탈락 예방을 돕고 있다.

성남시에는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의회가 있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지역구별 청소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소년 정책 제의 발굴 및 입법 제안 등의 역할을 한다. 2019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전국 최초로 선출직 의원제를 시행하여 청소년에게 선거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참여의식 향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 청소년자원봉사단, 공연기획단, 미디어단 등 150여 개의 자치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제안포럼, 성년의날,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청소년이 주인공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굵직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 운영... 전국 세번째 규모 올해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 예정

학교 교육과정 ‘성남형교육’ 사업 운영 청소년행복의회 선출직 의원제 첫 시행 150여개 자치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 비전 구현 위한 다양한 성과 인정 받아

자살·재난 등 긴급 위기 대응체계 구축 N번방 관련 특별대응전담 기구도 발족

뿐만 아니라 지역의 370여 개의 일터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체험 ‘청바지 프로젝트’, 가정의 안전망이 취약한 방과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도 진행중이다.

자살·재난 등 긴급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는다.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팀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력체제로 ‘초동대응팀’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내에 특별상담실을 꾸려 여러 명의 상담전문가들이 일주일간 상주하면서 1:1 청소년 집중 상담을 진행하는 물론, 종결 시기에는 급유 애도(哀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재단은 범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청소년 지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가정에 놓인 청소년들의 심리지원과 건강확인을 통해 마음이 편한 정서지원에 힘쓰는 것은 물론, 비대면 긴급서비스로는 취약계층 청소년 급식 및 안전키트 제공, 비대면 청소년활동으로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온라인 정기모임 추진 등을 실시해 휴관 중에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N번방’ 관련 피해자 치유 및 가해 예방을 위한 TF팀 및 특별대응전담 기구도 발족했다. 이들은 성남시 내 원스톱(one-stop) 디지털 성범죄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인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통해 수치심, 공포, 불안 등 피해자의 심리적 위기를 지원한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삶 살아가는데 도움 주고파”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1주 단위로 키트를 제작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것, 먹을 것, 게임할 것 등을 제작해서 배달해주고 있다.

취임 1년6개월을 맞고 있는데 그동안 겪어본 성남시 청소년들은 어떤가.

성남이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분도심에서는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분도심에서는 정보통신기술(IT) 업체들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성남시가 아낌없이 지원해줘 안정적이고 활발한 청소년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성남시의 청소년정책과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실질적 성과는.

계량적이거나 비계량적으로 성과에 대한 지표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에비던스(evidence)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데이터화 시키고 다시 분석하고 있다. 객관적 평가 자료를 마련해 지역 간의 격차를 조금 더 줄일 것인거라는 형태의 정책적 인프라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청년지원센터를 개원했는데.

후기청소년(만 19세~24세), 즉 19세를 넘어가도 지원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이번엔 조직개편하면서는 아예 청년정책실을 신설했다. 청년이 잘 돼야 청소년들에게도 길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이란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보고 있다. 학교는 교과 중심으로 가지만 우리는 좀 다른 틀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탐색해볼 수



코로나19 위기 청소년 적극 지원 온라인 콘텐츠 제공·키트 제작 배달

직업체험 ‘청바지프로젝트’ 대표적 평생교육 관점서 청년까지 지원 확대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려고 애쓰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재단이 자랑하는 ‘청바지프로젝트’가 있다.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혹은 직장장과 연계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체험해보는 직업체험프로젝트이다. 지역기반으로 하는 가장 훌륭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판교에 있는 여러 IT 회사들을 방문해서 직업 체험도 해보기도 하고 소규모 자영업체들을

방문해서 체험도 하고 있다.

성남의 청소년시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의 청소년시설은 전국 세 번째 수준이다. 어지간한 지자체는 이런 청소년시설 하나 갖고 있기도 힘든데 성남은 여럿 갖추고 있다. 또 성남은 특별하게 교육지원단이라는 것도 있다.

성남시 청소년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

행복지표를 조사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신·구 도심 간의 격차는 조금 있다. 분당구 내에서도 지역간의 격차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분도심과 신도심의 행복지수가 조금 약간은 다르다. 특히 자아에 대한 자신감, 미래에 대한 유능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격차가 있는 건 조금 아쉽나 하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외국 청소년들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건 우리나라 학생들이다. 어른을 대하는 태도도 확연히 다르다. 다만 지난 100년 동안 압축적으로 발전하다보니 너무 많은 가치관이 병존하고 있는 것 같다. 하드웨어적인 것들의 발전 속도에 비해 나머지 즉, 의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가는 부분이 격차가 너무 심하다. 성남은 특히 스펙트럼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다. 서비스를 잘게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가야한다.

미래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청소년이라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것들은 지지고 배워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변형해서 살아가는 게 주체적인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 성남은 아이 키우기 참 좋은 도시이다. 부모나 학생들이 시야를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지역사회에 좋은 시설들이 참 많이 있다.

/성남=진정원기자 news88